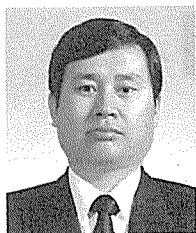


발과 구두

옛날에는 구두를 신으려면 맞춤 신발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거의 볼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술 즉 발에 대한 지식과 만드는 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처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되어 십수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자는 의미에서이다. 지금 생각하면 전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기능도 변변치 못한 컴퓨터를 무지하게(?) 비싼 값을 주고 들여와서는 마치 “이 구두로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누가 만든 것인데 이 구두를 신기위해서는 발을 거기에 맞게 변형시켜서 신어야 합니다” 하듯이 더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다닌 것이 지금은 몹시 부끄럽게 생각되는 한편, 그 말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 준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웃기는 일은 “구두는 뭐니뭐니해도 XXX야 그러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던, 그러지 않은 날이던 또 평상시나 나들이 할때나 항상 그것을 신어야 좋고 다른 신발을 신으면 안된다”고 하는 구두방 주인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尹揆榮
(주)데이콤 부장

옛날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말이 어느 정도는 실감나게 하는 본보기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상례다. 이것은 어쩌면 몹시도 당연한 듯하면서도 무척이나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그것은 마치 남의 도움없이 자기 돈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자기의 지식 = 순수한 자기의 지식 + 즉시 활용 가능한 남의 지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많게 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남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요즘은 기성화가 대부분이듯이 미리 만들어진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머지않아 자체 개발하는 부분이 극소화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시류라고 볼진대, 자칭 전문가라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